

# 반란과 전쟁으로 읽는 한국의 역사

새로운 시각, 주제별 접근의 한국사 출간 활발

최근 출판계에 각 시대별 통사와 함께 새로운 시각과 주제별로 접근하는 역사서 출간이 활발하다. 다양한 문화사나 상업발달사, 국경획정연구, 당쟁과 사회, 전쟁과 반란 등 단일한 주제를 다룬 역사서들이 그것이다. 한가지 주제를 깊이 천착한 이 책들은 한 시대 안팎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으며 단면을 다룸으로써 한 시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 중에 반란이나 전쟁의 역사를 살핀 책들은 변혁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구조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이를 둘러싼 역학구조를 다뤄 흥미롭다.

## 민중반란·권력쟁탈의 싸움

최근 한국역사연구회의 《한국 역사 속의 전쟁》(청년사)과 이기훈씨가 쓴 《전쟁으로 보는 한국역사》(지성사)는 격변의 순간인 전쟁을 줄기로 하여 한국사를 다룬 책들이다. 한편 주제별로 접근한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사회로 보는 조선 역사》(석필), 《한국반란사》(큰바위), 《조선시대 군신권력관계 연구》(서울대 출판부) 등의 테마사도 근래에 출간되어 눈길을 끈다.

반란이나 정쟁은 주도세력의 전횡에 억눌린 민중들의 반란과 상층부의 권력쟁탈 싸움인 경우가 많다. 민중반란은 대개 탐관오리들이나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으로, 예컨대 임경정과 홍경래는 궁핍과 신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에 분노해 민중반란을 주도했다. 이에 비해 상층부의 권력쟁탈은 권력찬탈 시도와 소외세력의 권력구도 뒤집기로 점철된다.

고려시대 '무신의 난'은 문관들이 배불리 먹고 놀 때 연회장의 보초를 서야 했던 무관들의 반발에서 비롯되었고,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가 둘째 왕비의 막내아들을 세자로 책봉한데 반발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정쟁과 반란의 역사는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역사를 장식한다. 그 결과 성공 후 변혁을 이루기도 하고, 또다시 분열을 겪는 변증법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다.

석필에서 테마 역사읽기 시리즈로 펴낸 이덕일씨의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와 《사회로 보는 조선 역사》는 일제의 식민지

## 최근 새로운 시각과 주제별로

접근한 역사서 출간이 활발하다.

상업발달사, 국경획정연구, 당쟁과

사회, 전쟁과 반란 등 단일한 주제를

깊이 다룬 책들이 한 시대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전쟁의

역사를 살핀 책들은 변혁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구조에 대한

역학구조를 다뤄 흥미롭다.

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논조인 '당쟁국론'의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사회와 당쟁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다. 《사회로 보는 조선 역사》는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신진 야당 사림파의 치열한 도전과 좌절, 부패한 특권 보수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한 세력이 도전하는 조선시대 사회의 역사를 흥미있게 구성한 저서다.

권문세족의 등장부터 격변하는 중앙정치, 사림파의 도전과 수난, 몰락 등을 다뤘다. 사회는 사림파의 입장에서 보면 부패한 특권 보수층에 대한 진보세력의 도전과 수난의 역사이며 승리의 역사다. 훈구파의 전횡에 맞서 싸워야 할 시대적 과제를 수행한 정치세력이 사림파였기 때문이다.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는 조선시대의 당쟁에 대해 '조선은 과연 당쟁 때문에 망했는가'라는 본격적인 의문을 던지며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 조선왕조가 열린 후 만년 야당 사림파는 집권세력인 훈구파의 수차례에 걸친 탄압, 즉 사회를 극복하고 100여년 만인 제14대 선조 때에 이르러 정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야당 시절 성리학이라는 확고한 정치이념과 학통에 의해 하나로 뭉쳤던 사림파는 정권을 장악하자 곧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다. 집권이 분열로 이어지는 현대 정치사의 술한 장면들의 한 전형을 이루는 이 동서 분당이 바로 300년에 걸친 조선당쟁의 시작이다. 이 책은 이러한 조선시대 당쟁의 역사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당쟁보다는 집권 사대부층이 새로운 정치구조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을 망



사회와 당쟁으로 본 한국사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영화 《영원한 제국》 중의 한장면.

국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 조선 전기의 권력 역학 관계

왕권·신권의 대립관계를 분석한 연구서 출간도 눈에 띈다. 서울산업대 김돈 교수가 펴낸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는 조선 전기 왕권과 신권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와 당쟁의 원인을 분석, 규명한 연구서다. 조선 초기 왕정의 궁극적 목표는 왕권의 정당성 확립에 초점을 두면서 재상권(宰相權)과 연관권(言官權)의 상호견제와 균형유지에 있었다. 왕조 창업에 따른 새로운 정치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던 조선 초기에는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왕조체제가 구현됐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왕권행사는 관료제를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에 군신간 권력 관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고, 군신간 권력관계의 변화는 세종대의 유림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세종 6년(1424)에 불교의 이단적 성격과 비윤리성 등을 지적하는 벽불론(關佛論) 상소를 올려 공론 형성의 주도층으로 성장하게 됐다.

국가 체제를 완전히 정비한 성종대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가운데 전제왕권을 행사한 세조를 비판하는 세력과 정통 성리학에 학문적 기반을 둔 사림출신 언관 관료가 등장해 군신 권력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가시화됐다. 연산군의 폭정은 군신간 권력관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다. 언관 관료와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보였던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신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킴으로써 군신 권력관계의 파탄을 몰고왔다. 이는 신료들의 주도로 군주를 교체시킨 중종반정으로 이어졌고 이후 신권 강화의 권력관계를 토대로 사림들이 대거 연관직에 진출,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반란사를 모은 《한국 반란사》는 '한국사의 흐름을 뒤바꾼 46명의 영웅이야기'라는 부제대로 반란과 혁명의 역사를 통해 한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박한실씨(전 전남대 교수)는 이 책에서 역사에 등고선처럼 남아 있는 반란과 혁명의 흔적을 살피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신라시대 대공의 난'부터 '장보고의 난' '궁예의 난' '만적의 난' '동학혁명' 5·16군사 정변'에 이르는 46건의 반란 경위와 시대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나타난 모든 반란과 혁명은 우연과 운명적인 것 같지만 반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전후에는 필연적인 배경이 있으며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 시대 인간들이라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인간은 동등해지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우수한 인간이 되기 위해 평등을 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강조한다.

〈마정미〉